

五腧穴의 流走方向에 關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兼任教授²

尹暢烈¹ · 李正泰²

關於五腧穴之流走方向的研究

尹暢烈^{1*} · 李正泰²

大田大學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 東新大學 韓醫科大學 兼任教授²

通過對始於四肢末端、行向心性流走、最終於肘膝關節之四關合入本經經脈的井榮腧經合五腧穴之流走的研究，得出如下結論。

井榮腧經合始於四肢末端，終於肘膝關節，呈向心性流走，而這種經絡流走方式，除五腧穴之外尚有十二經別、十五別絡、十二經筋、十二經脈之根結與標本，以及馬王堆帛書之“足臂十一脈灸經”和“陰陽十一脈灸經”等多種情形，其內容可謂豐富多樣。

營氣行於脈中，衛氣行於脈外，十二經脈之順次流走屬於營氣之循環，而井榮腧經合之五腧穴之流走則當看作衛氣之流動。體表屬於陽部，四肢為諸陽之本，頭部則是諸陽之會，皆為屬於陽氣的衛氣之分布十分旺盛之處，其中做為諸陽之本的四肢部的陽衛之氣，則按陽受氣於四末的原理，呈向心性和向上性的運行特點，且一步步的畜積其氣而去。另外，與井榮腧經合之五腧穴同樣具有向心性和向上性流走特點的十二經別、十五別絡、十二經筋、十二經脈之根結和標本，以及馬王堆帛書的“足臂十一脈灸經”和“陰陽十一脈灸經”等的脈氣流走，亦都與衛氣之運行具有密切的相關關係。

關鍵詞：井榮腧經合，五腧穴，陽氣，衛氣，向心性流走。

I. 序 論

『靈樞·逆順肥瘦』에서 “手之三陰은 從臟走手하고 手之三陽은 從手走頭하고 足之三陽은 從頭走足하고 足之三陰은 從足走腹이라”¹⁾ 하였고 『靈樞·營氣』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여 생성된營氣는 胃에서 肺로 보내지면 手太陰肺經으로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手陽明大腸經, 足陽明胃經, 足太陰脾經, 手少陰心經, 手太陽小腸經, 足太陽膀胱經, 足少陰腎經, 手厥陰心包經, 手少陽三焦經, 足少陽膽經, 足厥陰肝經을 거쳐 다시 肺로 注入되어 天地의 기운이 끊임없이 순환하듯이 常營無已하며 終而復始한다고 하였다. 한편 『靈樞·九針十二原』과 『靈樞·本輸』에서는 井榮腧經合의 五腧穴을 제시하여 脈氣가 四肢末端的 井穴에서부터 시작하여 四關인 肘膝關節의 合穴에서 內入한다고 설명하여 求心性的 流走체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고는 얼핏 보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脈氣의 流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시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yoony@dj.ac.kr Tel : 042-280-2601
접수일(2011년 2월 12일), 수정일(2011년 3월 22일)
게재확정일(2011년 3월 21일)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89.

II. 本論

1. 求心性 流走

井榮脈經合의 脈氣의 흐름은 四肢末端에서 시작하여 肘膝關節에서 合入하는 求心性 流走를 하고 있는데 內經에서 求心性 또는 向上性 流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十二經別, 十五別絡, 十二經筋들이 모두 이러한 流走體系을 가지고 있고 奇經八脈도 帶脈을 제외하고는 모두 아래에서 위를 향해 流走하고 있다.

또 『靈樞·根結』과 『素問·陰陽離合論』에서 十二經脈의 根結을 설명하고 있는데 根은 주로 四肢末端의 井穴이고 結은 腹部와 頭部의 穴이다. 張志聰은 “根者是 經氣相合而始生이요 結者是 經氣相將而歸結이라(根은 경기가 서로 합해져서 처음 생겨나는 것이요 結이라는 것은 경기가 서로 나아가서 귀결하는 것이다)”²⁾라고 하였고, 張介賓은 “下者爲根이요 上者爲結이라”³⁾고 하였다. 이는 모두 “根”은 經氣가 起始하는 根源處이고 “結”은 經氣가 歸結하는 聚合處라는 설명으로 十二經脈의 流走와는 다른 四肢末端에서부터 시작하여 軀幹 또는 頭部를 향해 흐르는 脈氣가 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靈樞·衛氣』에서는 十二經脈의 標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本은 주로 肘膝關節의 아래에 위치하고 標는 頭部, 胸部 또는 일부 背腧穴이다. 本은 본래 나무의 뿌리를 나타내는 말임으로 根本에 해당한다는 뜻이고 標는 나뭇가지의 끝을 나타내는 말이니 根本의 脈氣가 끝까지 도달하였다는 뜻이다. 이도 역시 十二經脈의 流走와는 다른 四肢에서 시작하여 求心性 또는 向上性으로 流走하는 脈氣의 흐름을 나타내며 十二經脈의 起止點과는 根結과 마찬가지로 일치하지 않는다. 또 馬王堆 漢墓에서 출토된 『靈樞·經脈』보다 시대가 앞서는 帛書중에 있는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의 各經脈의 走向도 四肢에서 起始

하여 위로 軀幹을 거쳐 頭面에 도달하는 向上性 流走이다.

2. 五腧穴의 流走

『靈樞·九針十二原』에서 “凡二十七氣以上下에 所出爲井이요 所溜爲榮이요 所注爲腧요 所行爲經이요 所入爲合이니 二十七氣所行은 皆在五腧也라(무릇 十二經脈, 十五絡脈의 二十七氣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 오기도 하면서 全身을 流走하는데 脈氣가 처음 나오는 곳이 井穴이고, 가늘게 흐르는 곳이 榮穴이 되고, 注入되는 곳이 腧穴이 되고, 성하게 흐르는 곳이 經穴이 되고,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合穴이 되니 二十七氣가 운행하는 것은 모두 핵심이 五腧穴에 있다.)”⁴⁾고 하였다.

五腧穴의 井穴은 四肢의 末端에 있고 合穴은 肘膝關節에 위치하니 五腧穴의 流走는 求心性流走와 마찬가지로 四肢末端으로부터 井榮脈經合의 五腧穴을 따라서 脈氣가 出溜注入한다. 이에 대한 注釋家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井의 의미에 대해 『太素·卷十一·本輸』에서는 “井者是 古者에 以泉源出水之處로 爲井也라(井의 뜻은 옛날에 샘물이 솟아나오는 곳을 井이라 했는데 땅을 파서 물이 나오게 한 뒤에도 여전히 본래의 명칭을 썼기 때문에 井이라 하였다)”⁵⁾고 하였고, 『難經集注·六十三難』의 楊注에 이르기를 “凡藏府가 皆以井爲始하니 井者是 謂谷井爾오 非謂掘作之井이라 山谷之中에 泉水初出之處를 名之曰井이라하니 井者是 主出之義也라(무릇 藏府의 經맥이 모두 井穴로부터 시작하니 井의 뜻은 골짜기의 샘물이오 사람이 파서 만든 우물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산골짜기의 샘물이 처음 나오는 곳을 井이라 이름하니 井은 저절로 솟아 나온다는 뜻이다.)”⁶⁾라고 하였으니 脈氣가 처음 시발하는 곳이다.

2) 張志聰. 靈樞集注. 中國. 浙江古籍出版社. 2002. p39.
3)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882. p286.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
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2000. p262
6) 王九思.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83.

溜는 『難經·六十八難』에서 流라 하였는데 같은 뜻으로 “흐른다”는 의미이다. 滎에 대해 馬蒔는 “滎者是釋文爲小水也라(형은 석문이라는 책에서 작은 물이라 하였다.)”⁷⁾고 하였고 張介賓은 “急流曰溜요 小水曰滎이니 脈出于井而溜于滎하니 其氣尙微也라(급히 흐르는 것을溜라 하고 작은물을 형이라 하니 脈이井에서 나와 형에서 흐르니 그 기운이 아직 미약한 것이다)”⁸⁾라 하였으니 샘에서 나온 물이 급한 경사 속에서 실개천을 이루어 급히 흐르는 모습이다.

注와 腧에 대해 馬蒔는 “輸者是注此而輸運之也라(輸라는 것은 이곳에 注入되었다가 다시 보내지는 것이다)”⁹⁾라 하였고, 張介賓은 “注는 灌注也요 輸는 輸運也니 脈注于此而輸彼니 其氣之漸盛也라(注는 관개하듯이 물을 대는 것이고 輸는 보내는 것이니 脈이 이곳에 주입되었다가 저리로 보내지는 것이니 그 기운이 점차 성해진다)”¹⁰⁾라 하였다. 이는 실개천이 위로부터 흘러와서 작은 웅덩이에 고여서 그 웅덩이를 채운 뒤에 다시 흘러가는 모습을 형용한 것이라 사료된다. 한의학에서 輸, 俞, 腧의 세 글자는 通用하는데 輸는 脈氣가 轉輸된다는 뜻이고, 俞는 車변을 생략한 것이고, 腧는 인체에 있기 때문에 육달월변을 가한 것이다. 古人들이 腧穴을 해석할 때 輸의 뜻으로 보아 轉輸로 해석한 것은 腧穴의 특징이 脈氣를 모았다가 다시 흐르게 하는 것이 화물을 모았다가 다른 곳으로 移送하는 것처럼 잠시 쉬면서 기운을 축적했다가 다시 흐른다는 의미를 취한 것이다.

行과 經에 대해 徐靈胎는 “行은 通條遠貫也(行은 쪽뻗은 길을 통해 멀리가는 것이다.)”¹¹⁾라 하였고, 馬蒔는 “經은 從此而經過之則爲經穴이라(腧穴로부터 출발하여 지나가는 것이니 經穴이 된다)”¹²⁾라 하였으며, 張介賓은 “脈氣大行하여 經營于此하니 其正盛也라(脈氣가 크게 행하여 이곳에서는 일을 경영하는

것이니 그 기운이 아주 성한 것이다)”¹³⁾라 하였다. 行에는 간다는 뜻이 있고 經에는 길 경, 지날 경, 다스릴 경의 뜻이 있다. 經營은 다스릴 경의 뜻으로 본 것인데, 이곳에서는 일이나 사업을 도모할 정도로 기운이 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腧에서 축적했던 기운을 바탕으로 脈氣가 큰 내를 통해 힘차게 뻗어나 간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 하다.

入과 合에 대해 王九思는 『難經集注·六十三難』에서 “經行既達하여 合會於海라 故名之曰合이니 合者는 會也라(지나가서 이미 이르러 바다와 合해지는지라. 따라서 合이라고 명명한 것이다.)”¹⁴⁾라 하였는데 이는 出溜注行入이 샘물이 솟아서 실개천을 이루어 웅덩이에 모였다가 다시 흘러 궁극적으로 흘러가는 곳이 바다임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이다. 張世賢은 『圖注八十一難經·六十八難』에서 “經過於此하여 乃入於臟腑하여 與衆經相會故로 謂之合이라(이곳을 지나 臟腑로 들어가 여러 經脈과 서로 합해지기 때문에 합이라 하였다)”¹⁵⁾고 하였는데 이는 四肢末端에서 시작한 脈氣가 合穴에서 本經의 經脈과 相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十二經脈의 井滎腧經合의 五臟穴은 脈氣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여 脈氣가 從小到大, 由淺入深하는데 井穴은 地下出泉으로 脈氣가 淺少하고 滎穴은 水成小流하여 脈氣가 稍大하며 腧穴을 灌注轉輸하여 脈氣가 漸盛하고 經穴은 爲成長流하여 脈氣가 正盛하며 合穴은 衆經과 合하고 脈氣가 深大하다.

3. 五臟穴의 流走는 衛氣의 運行이다.

十二經脈을 運行하는 氣는 營氣이다. 『靈樞·營衛生會』에서 “人受氣於穀하니 穀入於胃하여 以傳與肺하면 五藏六府가 皆以受氣라. 其清者爲營이요 濁者爲衛니 營在脈中하고 衛在脈外하여 營周不休하여 五十

7) 張隱庵, 馬元臺,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75. p11.
8)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882. p247.
9) 張隱庵, 馬元臺,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75. p11.
10)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882. p247.
11)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五洲出版社. 1969. p48.
12) 張隱庵, 馬元臺,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75. p11.

13)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882. p247.
14) 王九思,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83.
15) 張世賢, 圖中難經脈訣.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12.

而復大會라(사람은 精氣를 水穀의 섭취에 의존하니 水穀이 먼저 위에 들어가서 精微之氣를 化生하여 肺로 보내주면 이로부터 五藏六府가 모두 精微之氣의 공급을 받게 된다. 精氣중에서 精精한 것이 營氣가 되고 標悍한 것이 衛氣가 되니 營氣는 經脈의 안에서 운행하고 衛氣는 經脈의 밖에서 운행하여 쉬지 않고 돌아 각각 50번을 돌고난 뒤에 다시 만난다.)”¹⁶⁾ 고 하여 營氣와 衛氣가 모두 음식물에서 來源하지만 水穀의 精氣인 營氣는 脈中을 행하고 水穀의 濁氣인 衛氣는 脈外를 운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素問·痺論』에서도 “營者는 水穀之精氣也니 和調於五藏하고 灑陳於六府니 乃能入於脈也라. 故로 循脈上下하야 貫五藏하며 絡六府也라 衛者는 水穀之悍氣也니 其氣標疾滑利하야 不能入於脈也라 故로 循皮膚之中과 分肉之間하야 熏于肱膜하고 散于胸腹이라 (營氣는 음식물의 정미로운 기운이니 이것은 五藏을 조화하고 六府에 散布되니 능히 맥안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十二經脈을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면서 流行하여 五藏을 관통하고 六府에 연락되어 있다. 衛氣는 음식물의 사나운 기운이니 그 기운이 빠르고 잘 뚫고 흘러다녀 맥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皮膚와 肌肉 사이를 따라 운행하여 황막을 훈증하여 따뜻하게 하고 胸腹에 散布한다)”¹⁷⁾라고 하여 역시 營行脈中하고 衛行脈外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四肢末端에서 起始하여 肘膝關節에서 本經과 相合하는 井榮腧經合의 脈氣는 衛氣임이 자명해진다.

衛氣의 운행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앞서 소개한 『靈樞·營衛生會』의 내용으로 衛氣는 十二經脈을 流走하는 營氣의 순환경로를 따라 흐르는데 다른점은 營氣는 脈中을, 衛氣는 脈外를 走行한다는 것이다. 둘째, 『靈樞·衛氣行』에 있는 내용으로 낮에는 陽分을 25회 운행하고 밤에는 陰分을 25회 운행한다는 것이다. 셋째, 上述한 규율적인 運行을 하는 것 외에 全身을 散行한다는 것이다.

衛氣는 脈안으로 들어가는 氣가 아니고 그 성질이 標疾滑利하기 때문에 인체에서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營氣가 陰氣인데 반해 衛氣는 陽氣임으로 주로 인체의 皮膚分肉과 四肢 上部에서 활발하게 작용한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의 “清陽은 出上竅하고 濁陰은 出下竅하며 清陽은 發腠理하고 濁陰은 走五臟하며 清陽은 實四肢하고 濁陰은 歸六腑라(맑은 陽氣는 上七竅에서 작용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감각작용을 일으키고 대소변의 濁陰은 前陰과 後陰으로 나가며, 맑은 陽氣는 腠理에서 작용하고 탁한 陰精은 五藏에 저장되며, 맑은 陽氣는 四肢를 충실하게 채우고 음식물은 六府로 들어간다)”¹⁸⁾와 『靈樞·終始』의 “陽受氣於四末하고 陰受氣於五藏이라 (陽氣는 四肢末端에서부터 받고 陰精은 오장에 갈무리 된다)”¹⁹⁾ 라는 말이 이를 증명한다. 또 頭部는 諸陽之會이고 『素問·陽明脈解』에서 “四肢者는 諸陽之本也라”고 하였으니 頭部와 四肢는 陽氣인 衛氣가 활동하는 주무대이다. 따라서 四肢末端에서 肘膝로 흐르는 五腧穴의 흐름은 陽氣인 衛氣의 흐름인 것이다. 우리가 손을 만져보고 손이 찬 경우 陽氣의 부족으로 진단하는 것도 모두 여기서 연유한 것이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衛氣가 分布할수 있는 요인은 肺氣의 宣發作用에 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靈樞·癰疽』에서는 “上焦出氣하야 以溫分肉而養骨節하며 通腠理라(상초에서 衛氣를 출하여 기육을 따뜻하게 하고 골절을 영양하며 주리를 잘 소통하게 한다)”²⁰⁾라 하였다. 衛氣가 이처럼 쉽게 四肢末端과 皮膚分肉에 이를 수 있는 이유에 대해 『靈樞·衛氣』에서는 “其浮氣之不循經者는 爲衛氣라(떠 있는 기운으로 경맥의 순행을 따르지 않는 것이 衛氣이다)”²¹⁾라 하였고, 『靈樞·邪客』에서는 “衛氣者는 出其悍氣之標疾하야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9.

1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63.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1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71.

2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345.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6.

而先行于四末分肉皮膚之間而不休者也라(衛氣는 水穀에서 나온 사나운 기운으로 그 성질이 빨라서 먼저四肢末端 기육, 피부에 이르는데 쉬지 않고 운행한다)”²²⁾고 하였다.

衛氣는 衛라는 글자가 호위할위 字 임으로 피부와 기육을 護衛하여 外邪의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衛氣의 기능에 대해 『靈樞·本藏』에서는 “衛氣者는 所以溫分肉하며 充皮膚하며 肥腠理하며 司開闔者也라……衛氣和則分肉解利하며 皮膚調柔하며 腠理致密矣라(衛氣라는 것은 기육을 따뜻하게 하며 皮부를 충실하게 滋潤시키며 주리를 충실하게 하며 땀구멍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다.……衛氣의 기능이 정상이면 기육이 퍼져서 탄력성이 좋고 피부가 조화되어 부드럽고 주리가 치밀해진다)”²³⁾고 하였다. 여기서 衛氣는 陽氣로써 熱氣이며 充과 肥의 의미에서 피부와 주리를 영양하는 역할까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張志聰은 十二經脈의 血氣가 大絡을 따라 四肢末端에 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注를 달았다. “蓋十二經脈之血氣는 本于五藏五行之所生이로대 而脈外皮膚之氣血은 出于五藏之大絡하야 溜注于榮輸라가 而與脈內之血氣로 相合于肘膝之間이라(十二經脈의 혈기는 오장의 오행 기운에 의해 생긴 것이 근본이지만 맥의 밖에 있는 피부의 기혈은 오장의 대락을 따라 나가서 형혈 수혈을 흐르다가 맥안의 혈기와 주슬부위에서 합쳐진다)”²⁴⁾라 하였고, 또 “水穀所生之血氣는 從大絡而出于皮膚라가 復從五俞而注于經脈이라(수곡에서 생긴 혈기는 대락을 따라 피부까지 나갔다가 다시 五臟穴을 통해 경맥에 주입된다)”²⁵⁾라고 하였다. 이는 특정 경맥의 氣가 四肢末端으로 나왔다가 다시 그 經脈으로 들어간다고

본 것이다. 여기서 張志聰은 脈內에서는 血氣라 쓰고 脈外에서는 氣血이라 써서 兩者를 구별하고 있는데 主가 되는 것을 앞에다 놓은 것이다.

張介賓은 脈內를 흐를 때 營氣라 부르고 脈外를 흐를 때 衛氣라고 구분하여 부르는 것일뿐 양자 사이는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임을 『類經·營衛生會』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雖衛主氣而在外나 然이나 亦何嘗無血이며 營主血而在內나 然이나 亦何嘗無氣리오 故營中에 未必無衛며 衛中에 未必無營이니 但行于內者를 便謂之營이오 行于外者를 便謂之衛니 此人身陰陽交感之道로 分之則二오 合之則一而已니라(비록 衛氣가 기를 주장해서 맥외에 있으나 또한 어찌 혈이 없을 것이며 營氣가 혈을 주장해서 맥내에 있으나 또한 어찌 기가 없으리오. 따라서 營氣가운데 衛氣가 없을 수 없으며 衛氣가운데 營氣가 없을 수 없으니 다만 맥내를 행하는 것을 營氣라 이르고 맥외를 행하는 것을 衛氣라고 이룬 것일 뿐이니 이는 人身陰陽이 교감하는 이치로 나누면 둘이 되고 합하면 하나일 따름인 것이다.)”²⁶⁾라 하였는데 합리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Ⅲ. 考 察

十二經脈은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여 足厥陰肝經까지 순차적으로 질서있게 운행하며 다 돌고 나면 다시 手太陰肺經에서 시작하여 매일 50회씩 인체를 순환한다. 이 과정에서 手三陰은 從臟走手하니 上焦에 위치한 肺, 心, 心包의 내부에 저장했던 精氣를 손가락 끝까지 보내준다. 이를 계승해서 手三陽은 從手走頭하니 上焦에 있는 肺, 心, 心包와 配合되는 大腸, 小腸, 三焦의 經脈은 손끝에서부터 頭面部에까지 이른다. 足三陽은 從頭走足하니 脛경막아래에 위치하는 胃, 膀胱, 膽의 經脈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른다. 足三陰은 從足走腹하니 脛경막아래에 있는 脾, 腎, 肝의 經脈은 經氣를 다시 자신의 장기안에 갈무리 하니 1년의 春夏秋冬에 따라 만물이 生長收藏하는 이치와 일치한다. 즉, 手三陰은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8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13.

24)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中國. 浙江古籍出版社. 2002. p6.

25) 張志聰. 黃帝內經靈樞集注. 中國. 浙江古籍出版社. 2002. p6.

26)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882. pp268~269.

생의 과정을, 手三陽은 長의 과정을, 足三陽은 收의 과정을, 足三陰은 藏의 과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十二經脈은 順行하기도 하고 逆行하기도 하면서 하나로 연결되어 流走하지만 井榮輸經合의 五腧穴의 운행은 모두 四肢末端에서 起始하여 肘膝關節에서 本經에 合入하니 手三陰經의 方向과는 반대가 되고 手三陽經의 방향과는 일치하며 足三陽經의 方向과는 반대가 되고 足三陰經의 方向과는 일치한다. 여기서 十二經脈의 流走와 五腧穴 流走의 일치 불일치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黃帝內經의 다른 편과 馬王堆 帛書등의 문헌을 보면 경락이 사지말단에서 軀幹을 향해 흐르는 求心性 流走와 머리쪽을 향해 흐르는 向上性 流走에 대한 내용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十二經脈의 關係를 밀접하게 연결하여 十二經脈의 氣血을 조절하는 奇經八脈의 흐름도 帶脈을 제외한 7개의 맥이 모두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다.

十二經脈중에서 離入出合하면서 서로 表裡가 되는 두 경맥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體外와 體內, 四肢와 軀幹의 向心性 連繫를 강화시키며 특히 十二經脈과 頭面部의 連繫를 강화시키는 十二經別의 流走도 모두 頭面部에서 合하여 六合을 이루고 있다.

역시 十二經脈중 表裡가 되는 兩經의 體表關係를 강화시키고 다른 絡脈을 통솔하여 인체의 前, 後, 側面의 連繫를 강화시켜 전신을 그물처럼 엮어 氣血로 全身을 濡養하는 十五絡脈도 『靈樞·經脈』을 보면 대부분이 上向하고 있다.

經脈의 氣가 筋에 “結, 聚, 散, 絡”하는 十二經筋도 거의 모두 上向하고 있다.

十二經脈의 根結·標本과 馬王堆帛書의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도 모두 四肢에서 起始하여 軀幹과 頭面에 도달하는 求心性 向上性 流走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의 공통점은 十二經別이 臟腑에 入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장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주로 體表 및 頭部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十二經脈의 流走는 脈中을 흐르는 營氣의 흐름이고 위에서 언급한 諸脈의 流走는 脈外를 흐르는 衛氣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여기서 脈中, 脈外의 脈은 당연히 十二經脈을 말하는 것이다. 衛氣는 水穀之悍氣로 그 氣가 慄疾滑利하여 인체조직의 구석구석까지 거침없이 뚫고 들어가 無所不至하며 無所不在하는 氣이다.

脈外를 흐르는 衛氣는 上焦出氣와 肺의 宣發作用에 의해 온 몸에 布散하며 특히 陽之部인 皮膚와 諸陽之會인 頭面部와 諸陽之本인 四肢에서 왕성하게 活動한다. 陽氣와 衛氣는 같은 기운이다.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陽因而上하여 衛外者也라” 하였고 또 “陽者는 衛外而爲固也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作用과 機能을 가지고 말할 때 衛氣라 부르고 性質을 가지고 말할 때 陽氣라고 하는 것이다. 井榮輸經合의 脈氣가 四肢末端에서부터 出溜注行入하는 것은 陽受氣於四末의 원리에 의해 손, 발가락의 끝에서부터 陽氣인 衛氣가 모여 하나의 흐름을 이루어 肘膝關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계에는 雙方向의 흐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많이 있는데 天氣는 下降하지만 地氣는 上昇하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 물고기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며, 나무의 뿌리에서 물과 무기질이 물관부를 통해 가지와 잎사귀로 올라가지만 광합성 작용에 의해 형성된 당분은 체관부를 통해 다시 뿌리로 내려오는 이치와 동일한 것이다. 뿌리에서 枝葉으로 흐르는 물관부의 작용을 경맥의 流走에 비교하고 모든 잎사귀에서 합성한 포도당 에너지를 다시 역방향으로 이동시키는 체관부의 흐름을 五腧穴을 포함한 諸經絡의 흐름에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十二經別, 十五別絡, 十二經筋, 十二經脈의 根結·標本, 馬王堆帛書의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등의 脈氣의 流走는 衛氣의 運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 모두를 단순히 衛氣의 흐름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가 않다.

『靈樞·營衛生會』에서 “營衛者는 精氣也오 血者는 神氣也라 故血之與氣는 異名同類焉이라(營氣와 衛氣는 모두 수곡에서 만들어진 精氣이지만 血은 精氣에서 化生된 더욱 소중한 물질임으로 神氣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血과 氣는 명칭은 비록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종류의 물질이다)”²⁷⁾라고 하였다. 이는 氣가 血로 轉化하고 血이 氣로 轉化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張介賓이 말한 營衛一體論과도 의미가 相通한다. 또한 脈內之血氣는 脈外로 出하여 脈外之氣血로 분리되기도 하고 脈外之氣血은 다시 脈內로 入하여 脈內之血氣와 合할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井榮膈經合에서 축적된 脈外之氣血이 肘膝關節에서 自經의 脈內로 合入하여 本經과 合一하는 이치인 것이다.

IV. 結 論

四肢末端에서 起始하여 求心性으로 流走하다가 四關인 肘膝關節에서 本經의 經脈에 合入하는 井榮膈經合 五腧穴의 流走에 關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四肢에서 起始하여 求心性 또는 向上性으로 流走하는 經絡의 流走는 五腧穴의 流走이외에도 十二經別, 十五別絡, 十二經筋, 十二經脈의 根結·標本 및 馬王堆帛書의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등이 있어 그 내용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2. 井榮膈經合은 四肢末端에서 시작되어 肘膝關節에서 그치는데 脈氣는 물이 山下의 샘에서 솟아나 大海에 이르는 과정에 비유하여 出溜注行入한다고 한다.
3. 井榮膈經合의 脈氣는 從小到大 由淺入深하는데 井穴은 地下出泉으로 脈氣가 淺少하고, 榮穴은 水成小流하여 脈氣가 稍大하며, 腧穴은 灌注轉輸

하여 脈氣가 漸盛하고, 經穴은 爲成長流하여 脈氣가 正盛하며, 合穴은 衆經과 相合하고 脈氣가 深大하다.

4. 營氣는 脈中을 行하고 衛氣는 脈外를 行하는데 十二經脈의 순차적인 流走는 營氣의 순환이고 井榮膈經合 五腧穴의 流走는 衛氣의 흐름이다.
5. 衛氣는 水穀之悍氣로 그 성질이 標疾滑利하여 上焦의 出氣作用과 肺의 宣發作用에 의해 人體의 곳곳에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無所不至)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無所不在)
6. 體表는 陽之部이고 四肢는 諸陽之本이며 頭部는 諸陽之會로써 특히 陽氣인 衛氣가 많이 分布하는데 이중 諸陽之本인 四肢에서는 陽受氣於四末의 원리에 의해 陽氣인 衛氣가 求心性, 向上性으로 운행하면서 그 기운을 畜積해 나가는 것이다.
7. 井榮膈經合 五腧穴의 流走와 비슷한 求心性 向上性의 流走방향을 가지고 있는 十二經別, 十五別絡, 十二經筋, 十二經脈의 根結·標本, 馬王堆帛書의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 등의 脈氣의 流走는 衛氣의 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8. 營氣의 흐름인 脈內之血氣와 衛氣의 흐름인 脈外之氣血은 서로 一體 관계속에서 서로 分離되기도 하고 合一되기도 한다.

參 考 文 獻

1. 徐靈胎.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五洲出版社. 1969. p.48.
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出版社. 2000. p.262.
3. 王九思. 難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83.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0.

4.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882. p.247, 268, 269, 286.
5. 張世賢. 圖注難經脈訣. 臺北. 文光圖書有限公司. 1982. p.12.
6. 張隱庵. 馬元臺. 黃帝內經靈樞. 서울. 成輔社. 1975. p.11.
7. 張志聰. 靈樞集注. 中國. 浙江古籍出版社. 2002. p.6, 39.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3, 163.
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2, 71, 119, 120, 189, 213, 236, 298, 345.